

# 단양 지역의 한말 의병항쟁

구완회\*

- 
- I. 머리말
  - II. 전기 의병기의 단양의병
  - III. 후기 의병기의 단양의병
  - IV. 맺음말
- 

## I. 머리말

한말의 격동기에 단양지역은 의병활동의 중요한 무대였다.<sup>1)</sup> 그러나지금까지 지역의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는 호좌의진(湖左義陣), 즉 제천의병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주로 언급되었다. 지역에서 의병활동에 참여했던 장충식(張忠植)과 정운경(鄭雲慶) 등도 호좌의진의 틀 속에서 연구되었다.<sup>2)</sup>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학문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 단양 지역에서 전개된 대부분의 의병활동이 체계적인 자료를 남긴 호좌의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보통 ‘제천의병은 제천 사람들에 의한, 제천에서의 의병활동’으로 거칠게 이해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제천 외에서는 의병에 대하여 대체로 무관심한 경향이 적지 않다. 호좌의진의 중요한 무대였던 충주나 단양·영월 등에서도 그러하다. 이는 한말 의병의 이미지는 제천에게 선점 당하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좌의진, 특히 후기의병기에 활동했던 이강년의 호좌의진만 하더라도 그 활동 영역은 특정한 고을에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활동 영역에서 단양이 차지하는 비

---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1) 단양의 의병활동에 대하여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구완회, 1997, 『한말의 제천의병-호좌의진 연구-』, 집문당.
- 2) 구완회, 2004, 「한말 을미의병기 장충식의 생애와 의병노선」 『조선사연구』 13 ; 구완회, 2005, 「한말 의병장 정운경의 생애」 『조선사연구』 14.
- 3) 제천의병이라는 명칭을 일반화시키다시피 한 것은 김상기이다. 그는 한말에 각지역에서 봉기한 의진을 대체로 중심적 구실을 했던 지역명을 따라 이름붙이는 학계의 관례에 따라 유인석이 지도한 을미의병, 즉 호좌의진을 제천의병이라 이름 붙였다(김상기, 1990, 「갑오-을미의병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13쪽, 각주 91). 구완회는 후기 의병기에 충북·경북·강원 삼도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가장 중요한 의진인 이강년 부대가 을미년 호좌의진의 계승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여타 계열의 의진들도 호좌의진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들어 제천의병으로 파악하였다(구완회, 1997,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중은 특별하다.

이 글에서는 호좌의진의 역사 속에서 단양 지역의 의병활동이 어떠했는가에 관심을 집중시키려 한다. 의병항쟁기를 전기 의병기와 후기 의병기로 나누고,<sup>4)</sup> 전기에는 호좌의진에 단양의 어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가 하는 점을 정리하였다. 반면에 후기에서는 호좌의진에 참여한 이들, 호좌의진과 별개의 지휘체계 속에서 활동했던 몇몇 의병부대의 활동상을 볼 것이며, 주요 전투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자료로서는 단양 출신으로서 의병항쟁기에 일기를 남긴 장충식과 장익환의 일기를 통하여 전기 의병기 단양의 모습을 살폈고, 후기 의병기는 의병측과 일본군측의 일기와 전황(戰況) 보고서를 활용했다.

## II. 전기 의병기의 단양의병

궁벽한 산간 고을 단양에도 한말의 격랑은 밀려왔다. 광산이 개발되면서 외지에서 낯선 이들이 몰려왔으며,<sup>5)</sup> 일본인 상인은 단양까지 찾아들었다. 청일전쟁에서 패전한 청나라 병사들이 충주-제천 사이에 6천 명이나 들어와서 분탕질을 쳤다 하니<sup>6)</sup>, 단양으로 흩어진 패잔병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다. 민중들도 외세의 침략을 실감하며 외세에 맞서야 한다는 동학의 새로운 가르침에 귀 기울였고,<sup>7)</sup> 몇몇 지식인들은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척사(斥邪)의 가르침에 공감하면서 사군(四郡)<sup>8)</sup> 지역에 새로이 발판을 마련한 화서학과(華西學派)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sup>9)</sup>

이런 즈음에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전통적 질서를 마구 뒤흔들고 있었다. 정운경이나 심락인(沈樂仁) 등의 보수적 유생들은 동학의 거점을 공격하여 이에 맞섰다.<sup>10)</sup> 또한 안동에서 봉기한 서상철(徐相轍) 의진이 청풍과 단양 일대에서 일본군과 격렬하게 부딪치고 단양 쪽으로 패주했다.<sup>11)</sup> 그 뒤를 쫓아 일본군이 또 몰려 왔다.

1895년 여름에 왕비가 시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일본의 낭인들에 의하여 자행된 이 사건

4) 이 글에서는 편의상 1905년의 의병과 1907년의 의병을 하나로 묶어 후기의병기로 범주화했다.

5) 유인석, 「감역장공행장」, 『의암집』 권49.

6) 이면재, 「갑오년 일기」, 『호서의병사적』, 506쪽.

7) 단양은 일찍부터 동학의 조직이 정비된 곳으로서 성두한을 비롯한 지도부가 많은 동조자를 이끌고 있었다.

8) 사군이란 조선시기의 제천·청풍·단양·영춘의 네 고을, 즉 오늘날의 제천·단양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내사군(內四郡)이라고도 한다.

9) 단양에는 이항로의 제자인 이인귀가 거주했고, 최인준이 일찍부터 유종교의 문하에 출입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최열·이석영·지원영·김호성·이종무 등이 유종교의 강단에, 혹은 유종교 이후의 장담서사에 출입하고 있었다.

10) 정운경, 「척동사실기」, 『송운집』 권3, 17쪽 하~20쪽 하; 『황성신문』 1898. 11. 19. 잡보.

11) 구완희, 1997,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46~48쪽.

은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개할 일이었다. 그리고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뒤이어 온 소식은 단발령이었다. 군수는 관찰사 명령이라면서 단발하라는 지시문을 각 마을에 내려 보내고 있었다.<sup>12)</sup> 그러나 오랫동안 신체의 머리터럭 하나까지도 부모가 주신 것이라면서 소중히 여기던 조선 사람들에게 단발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럴 즈음 단양에 세거하던 장충식(1836~1901)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일찍이 민씨 정권 실력자와의 인연으로 벼슬한 적도 있었던 그는 왕비의 시해에 크게 분노했다.<sup>13)</sup> 그리고 단발령이 내리자 송지영(宋之永)이나 몇몇 젊은 선비들과 처의(處義)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고, 의병 봉기를 결행하기로 하고 격문을 지어 돌리고 있었으니, 12월 3일(1.17)의 일이었다.<sup>14)</sup> 격문은 다음과 같다.

슬프다. 곤전(坤殿)께서 화를 입으심이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일어났으니 밤낮으로 이를 생각하여도 복수할 대책이 없도다. 가까운 데가 모두 적의 나라이나 창의(倡義)하는 까닭은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사람으로 그 누가 왕실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잊을 것인가. 세상은 모두 신세를 생각하여 살기만을 구하는도다. 남으로 북으로 달려 보아도 어찌하여 승냥이 같은 자들이 득세하였단 말인가. 동으로 서로 패망하여도 결국은 하찮은 도움을 주는 친한 이웃 하나 없도다. ...

나라가 비록 한쪽에 치우쳐 있고 작다지만 3천리 안에 다스림은 문명(文明)을 숭상하였고, 5백 년 동안 어진 이를 존경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숭상하여 본디 일꾼기를 추르(鄒魯)의 나라라고 하였다. 바른 가르침을 붙들고 못된 가르침을 배척하며 오랑캐의 문물을 엄하게 막았는데 승평(昇平)의 세월을 말세라고 생각하여 매년 풍년이 들어 호구가 증가하더니 끝내는 공사간의 저축이 탕진되고 폐단이 많아져 고질적 병폐가 심하였도다. 종실과 외척의 신하가 세력 있는 자리를 다투어 차지하고 임금의 존엄함은 떨치지 못하니 과거와 벼슬은 이익을 만드는 구멍으로 활짝 열렸으니 선비들의 기세는 점차 꺾이고 탐관오리는 바다 같은 욕심을 내어 물산이 풍부한 곳을 바라며, 부호들의 동산(銅山)은 얼음산처럼 녹아 없어지니 생령이 도탄에 빠진 것이 대저 이즈음 같은 적이 없었도다.

윤리가 썩어 문드러짐은 전세(前世)같은 때가 없었다. 임오년 6월의 변고는 아직도 차마 이웃 나라에 들리게 할 수 없도다. 갑신년에 다섯 도적의 흉한 응함은 조정 신하의 개화하자는 견해의 거울이 되어 둔듯 변고와 변란을 만드는 길잡이가 되었도다. 유생들이 상소를 다투어 올렸으나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갇히는 벌을 받았으며, 서양과 왜놈들이 감히 도시와 항구의 요지에서 방자하게 구는데 조야(朝野)에서는 망령되어 기계의 교묘함에만 미혹되었도다.

슬프도다. 하찮은 필부(匹夫)도 오히려 아버를 죽인 원수를 갚는데, 하물며堂堂하게 신하된 자가 감히 군주를 꺾박하여 욕보인 것을 잊겠는가. 이제 호서지방은 사대부가 번성하여 거주하는 곳이며, 영남의 여러 군자들이 강학(講學)하는 곳에서 가깝고 산천의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문무(文武)의 기이한 재목들을 모았으니, 난리에 임하여 널리 건지는 것은 많은 선비들이 바라는 것이로다. 궁하게 살면서 홀로 착하기만 하다면 역시 어찌 백성들에게 덕이 될 수 있겠는가. 원수를 갚지 못

12) 장익환, 『일기』 을미년 12월 3일.

13) 구완희, 2004, 「한말 을미의병기 장충식의 생애와 의병노선」 『조선사연구』 13.

14) 장익환, 『일기』 을미년 12월 3~4일.

하였는데 머리털을 먼저 잘랐으니 측근 신하들이 역적질한 것을 볼 수 있고, 다스림이 없는데 좋은 칭호를 붙이고 황제를 칭하여 억울하게도 추한 오랑캐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니 하찮은 지식으로도 감히 만 번 죽을 계책을 내는도다.

고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 이들은 바라건대 한 마음으로 맹세함을 좇아 피를 마셔 위와 같이 일을 제시하여 모수(毛滂)에게 기대어 뜻을 이룬다면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편으로 여미는 오랑캐 풍속을 한 죄를 어찌 관중(管仲)에게 변명할 것인가. 두 번 절하고 고하여 맹세하니 의리를 지지하여 주기를 천만번 바라노라.<sup>15)</sup>

의병봉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 격문은 당시 여러 곳의 의병격문에서 강조되었듯이 국모시해와 단발령에 대한 분노를 언급했다. 그러나 호좌의진의 기초가 된 이필희(李弼熙) 의진에서 나온 격문이 단발령을 중화문화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가장 먼저 강조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sup>16)</sup> 또한 갑신정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그렇다 하여도 임오군란까지 언급하는 것은 예외적이다. 이는 민씨 정권의 문객으로 관료의 길에 들었던 장충식의 시국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sup>17)</sup>

장충식이 격문을 배포하며 지원영(池源永)과 더불어 의병을 도모할 무렵, 제천으로부터 의병부대가 단양으로 들어왔다. 본래 이 의병부대는 지평의 선비인 이춘영(李春永)이 지평의 포군 대장 김백선(金伯善)과 함께 봉기하고, 제천에 들어와서 유중교(柳重敎)의 제자들이 대거 지휘부에 들어가서 새로 구성한 의병부대였다. 제천에서 의진의 대장으로 추대된 이는 여주 출신으로서 단양의 품달에 머물러 살던 이필희였다.

이필희 의진이 단양으로 진출한 이튿날, 장충식은 이필희 의진으로 달려갔다. 장충식은 유중교가 강학하던 시절, 또는 그 후에 장담에 출입하거나 교류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장충식이 의논 상대로 삼았던 지원영은 장담에 출입하면서 유중교의 가르침을 받은 처지였기 때문에, 장담 선비들이 대거 참여한 이필희 의진과의 만남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장충식은 노구를 이끌고 달려 나가서 그들을 맞아 의진에 투신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 사회에서 지위, 육십 줄에 접어든 나이로 미루어 보아 참모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충식의 아들 장익환(張益煥)은 대진소(大陣所: 대장이 지휘하는 곳)의 명령을 받아 각 마을에 포군을 일으키는 명령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sup>18)</sup>

이 무렵 장익환은 송지영 등과 의논하여 단양의 의병론자들이 연명(連名)한 ‘창의통문’을 돌리고 있었다. 이러한 통문에 대하여 단양의 유생인 장천여(張天如)와 이영하(李英夏)의 의견은 다음

15) 『산거만록』 3쪽 상~4쪽 상.

16) 이후 호좌의진의 공식적인 입장은 항상 단발령을 더욱 중요한 위기상황으로 이해했다. 그것이 유인석을 비롯한 장담 선비들의 입장이었다. 김영록, 「통문」, 『창의건문록』.

17) 임오군란 때에 장충식의 후견인이었던 민경호가 피살되었다. 구완희, 2004, 「한말 을미의병기 장충식의 생애와 의병노선」 『조선사연구』 13.

18) 장익환, 『일기』 을미년 12월 7일.

과 같다.

장천여 : 사람으로서 누가 이런 마음이 없으리오? 세상이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나 당당한 대사에 한 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다면 단양 한 고을에 어찌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영하 : 내 이름도 통문에다 적었다고 하던데, 부름을 받지도 못하였는데 함부로 적는 법도 있는가? ...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랴만, 의병소에서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sup>19)</sup>

이로써 장익환 등이 돌리고 있던 창의통문에 보수 유생들의 호응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필희 의진은 의병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단양군수 권숙(權濬)을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장희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맞아 첫 전투를 벌였다. 그 결과는 승리였다. 그러나 지평군수 맹영재(孟英在)가 지평 출신의 포군을 은밀히 불러들이는 바람에 갑자기 의진이 무너져 영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장충식은 단발의 화가 미쳐올 것에 대비한 지시를 전하였다.

만일 충주의 순검 무리가 머리를 깎으러 오는 폐가 있으면, 마을에서 일제히 모여 쳐서 쫓으라. 뒷갈망은 의병이 스스로 담당할 것이다.<sup>20)</sup>

영남으로 내려갔던 장충식이 다시 영춘으로 복상한 것은 7~8일 만이었다. 그간 대장 이필희는 지평 출신의 포군들에게 배척을 당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춘영이 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영춘군수 신공휴가 환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

이후 영월로 이동한 의진은 유인석(柳麟錫)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부대를 재편했다. 이 때에 유인석이 건설한 의진이 이른바 ‘호좌의진(湖左義陣)’이었다. 호서(湖西)지역의 왼편, 즉 충청도 동쪽에서 일어난 의병부대라는 뜻이었다. 유인석이 영월에서 등단하였으면서도 호좌의진이라 일컫는 것을 보면 의병의 근거를 사군 지역에 두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유인석은 이춘영을 중군장, 전군장에 안승우, 후군장에 신지수(申芝秀), 좌군장에 원규상(元奎常), 우군장에 안성해(安成海), 선봉장에 김백선(金伯善) 등을 임명하였다. 이조승(李肇承)·홍선표(洪選杓)·이기진(李起振)·정화용(鄭華鎔) 등은 종사로 임명하였다.<sup>21)</sup> 이춘영과 김백선은 처음 지평 포군을 기반으로 봉기한 경우였고, 안승우·신지수·이조승·홍선표·이기진·정화용은 장담에 출입하던 선비들이었다.

이로써 지휘부의 면모가 거의 장담 선비들로 채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에 장충식은 의진 내의 최연장자로서 사객(司客)과 참모를 겸하여 감당했다.<sup>22)</sup> 사객이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선비들을 맞아 들이고 지휘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인데, 유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호좌의진 내에서

19) 장익환, 『일기』 을미년 12월 10일. 장천여는 장익환의 족속이고, 이영하는 평동에 살던 선비이다.

20) 장익환, 『일기』 을미년 12월 12일.

21) 이기진, 『舉義終始錄』, 『명와집』 상, 60쪽 하~61쪽 상 ; 이정규, 『종의록』, 152쪽 ; 박정수, 『사실』 병신 1월 병술(20)일, 366쪽.

22)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1일.

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었다. 장충식과 함께했던 송지영은 대진(大陣) 참모로 위촉되었다.<sup>23)</sup> 단양의 선비인 안신모(安愼模)가 장충식을 돕는 종사로 위촉되었다.<sup>24)</sup>

호좌의진은 진영을 정비한 후, 곧장 영월에서 제천으로 내려왔다. 곧이어 단양군수 권숙과 서상기(徐相耆)가 잡아다가 처형하여 의병의 기세를 떨쳤다. 당시 의병부대가 친일내각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던 군수를 배척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으나, 호좌의진처럼 ‘처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처를 취하는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이었다. 내용이야 어떻든 국왕의 임명을 받고 내려온 군수를 벤다는 것은 ‘반역’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따라서 대단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단양군수는 권상하(權尙夏)의 후손으로 사군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집안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컸다. 호좌의진의 타협 없는 투쟁의 노선이 극명하게 천명된 것이다. 그들은 “난신적자는 누구나 죽일 수 있고, 난신적자를 벨 때에는 그 패거리부터 친다.” 라는 『춘추』의 가르침을 내세웠다.

기세를 올린 호좌의진은 곧장 충주성을 향하여 진군했다. 1만여 명의 의병들이 몰려들자 충주성은 곧 의병의 수중에 떨어졌다. 호좌의진은 도망쳤던 관찰사 김규식(金奎軾)을 잡아다가 베었다. 이후 호좌의진은 3관찰 6군수를 베었다는 이름을 얻었듯이 그 위엄을 사방에 떨쳤다.<sup>25)</sup>

이처럼 호좌의진이 충주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을 무렵, 단양에서도 의병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의병에 반대하던 군수가 처형된 마당이었기 때문에 행정권은 완전히 의병쪽에 넘어와 있었다. 장익환은 의병에 자원하는 포군에게 마을에서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칭찬했다.<sup>26)</sup>

호좌의진의 주력부대가 충주성으로 이동한 후, 비워둔 사군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종의 민병대(民兵隊) 체제를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양 지역은 민병대가 구성되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장익환은 아버지로부터 민병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sup>27)</sup> 이틀 후에는 민병대장의 차첩을 받았다.<sup>28)</sup> 김동일(金東一)을 참모로 하고, 이숙하(李叔夏)를 참모로 삼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었다.<sup>29)</sup> 장익환은 장원모(張遠模)를 종사로 추가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sup>30)</sup>

이 무렵 소모장(召募將) 이문흠(李文欽)이 대장소의 명을 받아 포군을 모으러 단양에 왔다.<sup>31)</sup>

23) 「湖左義兵召討營任案」, 『금석주일기』 그는 서상렬을 좇아 영남지역으로 내려가서 활동하기도 했다.

24) 장익환, 『일기』 병신년 2월 11일.

25) 을미의병기에 호좌의진은 청풍군수, 단양군수, 평창군수, 의성군수, 예천군수, 천안군수, 충주관찰사, 춘천관찰사, 안동관찰사를 베었다는 이름을 얻었다. 춘천관찰사는 춘천의병이, 안동관찰사는 문경의병이 베었지만, 두 지역의 의병부대가 모두 사군지역으로 달려와서 호좌의진에 합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26)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7일.

27)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10일.

28)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12일.

29)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10일.

30)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26일. 장원모는 장익환의 집안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정희(李正儀)가 포군 30명을 모아서 제천에 있는 의병지휘부로 나아간 후였기 때문에 포군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문흠은 이를 탈잡아 민병소 서기 김동일을 잡아 가두었다.<sup>32)</sup> 이로써 민병소가 포군 징발의 책임을 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도 쓸 줄 모르는 농민 130명을 거두어 갔다.<sup>33)</sup> 민병대장 장익환은 충주성의 유인석을 만나 그들은 포군이 아닌 민병임을 설명하고 휘하의 민병으로 확보했다.<sup>34)</sup>

장익환은 민병대장으로서 130명의 민병을 데리고 충주성 방어 전투에 참여하였다. 의병봉기를 처음에 주도했던 이춘영은 수안보 전투에서 이미 전사한 후였고, 일본군은 충주성을 되찾기 위해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장익환은 한성원(韓性源)과 이남화(李南化)를 집사로 삼고 민병 40명은 동서남북의 문을 파수하게 하고, 90명은 북문에서 서문에 이르는 모퉁이의 성첩에 파수막 10개를 설치하여 성을 지키도록 조치했다.<sup>35)</sup> 이 과정에 의진내에서 존경받던 주용규(朱庸奎)가 전사하였고, 그 밖의 의병 전사자들이 나왔지만, 장익환이 이끌던 2명의 민병도 1월 21일 전투에서 전사했다.<sup>36)</sup> 호좌의진이 충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퇴각할 때에 장익환은 40명의 민병을 이끌고 청풍까지 짐을 옮기고, 단양으로 돌아왔다.

민병소에 동원된 민병들에게는 급료가 주어졌고,<sup>37)</sup> 전사자에게는 장례비로 20냥이 주어졌다.<sup>38)</sup> 이십일 남짓한 충주성 전투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대체로 10냥 이상의 품삯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sup>39)</sup> 동원된 날 수와 책무에 따라 다소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병들에 대한 품삯이 공평하지 않아 불만이 일었다는 것이 이를 말한다.<sup>40)</sup>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제천으로 돌아온 이후 두어 달 동안은 ‘수성장(守城將)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던 시기이다.<sup>41)</sup> 사군 지역을 비롯한 원주·영월·정선·지평·영월 등 최소한 9개 이상의 고을은 사실상의 호좌의진이 확보한 해방구가 되었다. 중앙에서 임명한 군수는 의병지휘부에 복종하여 수성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불복하는 군수는 처단되었다. 군수를 처단한 경우에는 따로 수성장을 차출하여 향리조직을 통솔하면서 고을 안에서 거두어 들이던 세금을 의진으로 집중시키도록 하였다.

31) 이문흠은 청풍의 서운에 살던 이로서, 장진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32)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12일.

33)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14일.

34)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16일.

35)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16일.

36)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21일.

37)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16일.

38) 장익환, 『일기』 병신년 1월 26일.

39) 장익환, 『일기』 병신년 2월 5일.

40) 장익환, 『일기』 병신년 2월 5·6·9일.

41) 구완희, 1995, 「제천을미의병의 경제적 기반과 수성장체제」 『인문사회과학연구』 2,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이 시기에 단양수성장으로는 심희경(沈羲慶), 영춘수성장으로는 원도상(元道常)이 임명되었다. 심희경에 대한 자료는 별다른 것이 없지만, 원도상은 영춘 보발에 살던 지주로서 의병을 적극 지원했던 인물로 알려졌다.<sup>42)</sup>

의병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원도상 외에도 배석귀(裴錫龜)<sup>43)</sup>와 조상지(趙常之)<sup>44)</sup> 등의 요호를 들 수 있다. 그중 어의곡리에 살던 부호인 배석귀는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신향(新鄕)으로 입록되었던 인물로 기억된다.<sup>45)</sup>

수성장 체제를 통하여 사군 일대를 비롯한 해방구를 안정시킨 호좌의진은 공세에 나섰다. 가흥과 수안보 및 조령의 일본군 병참이 주요한 목표였다. 단양은 수안보와 조령에서 작전하는 전투 부대를 후원하는 중요한 후방 기지가 되었다.

그러나 김백선이 가흥작전에 실패한 후 항명 사건으로 처형된 후(2.14), 군사작전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홍대석이 지휘하는 전군이 수안보를 치다가 실패하였고(2.28), 영남에서 작전 중이던 서상렬의 활동을 지원하던 이강년의 조령 작전도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 무렵에 영춘에 거주하던 정운경이 호좌의진의 부름을 받고 나섰다. 일찍이 동학 조직을 공격한 적이 있는 그는 사당에 출전을 고하고 몸을 일으켰다.<sup>46)</sup>

정운경은 홍대석을 이어 전군을 맡았다. 당시의 전군의 구성원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인 군안(軍案)을 통하여 단양의 의병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표 1 호좌의진 전군 부대 명단>

소 속	성 명	거주지	소 속	성 명	거주지
제1대	이희경*	단양	제3대	손삼계*	단양
	이귀련	단양		차대진	단양
	김팔봉	단양		오순오	단양
	윤자석	단양		박재홍	단양
	이사옥	단양		오대실	단양
	임흡쇠	단양		석봉용	단양
	박귀동	단양		김백원	제천
	박영실	단양		이점팔	단양

42) 원도상은 후기의병기에도 이강년의 '좌종사'로서,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다.

43) 장익환, 『일기』 병신년 2월 8일.

44) 장익환, 『일기』 병신년 4월 10일.

45) 『향록』(단양향교 소장본)

46) 당시 정운경이 작성한 고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력 250년(1896) 병신년 정월 2일에 불초 증손 운경은 감히 고하나이다.  
 증조부님, 반남박씨 증조모님, 조부님, 기계유씨 조모님, 아버지님, 함중어씨·원주원씨 어머니이시여.  
 지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여 십 오랑개가 창궐하더니 조정에 가득한 벼슬아치들이 문을 열어젖히고  
 도적을 맞아들어 중전을 해치더니 욕됨이 주상에게까지 미쳤으니 중화가 오랑개가 되는 것이요, 상투  
 튼 머리는 까까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병이 함께 충성스러운 분노를 일어났는데, 못난 저는 잘  
 난 것도 없으면서 의병부대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대에는 기율이 있는 것이니 명령을 어기기가  
 어려워 이제 장차 출진하려고 하여 삼가 사연을 고하오니, 영령께서는 가만히 도우시어 역적의 무리를  
 토멸하고 나라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소서.

	유재홍 최덕근	예천 단양		박재문 강성복	단양 단양
제2대	이태운* 이병호 이인호 정완철 박삼석 조춘백 전해용 변출이 진덕규 김원오	제천 제천 제천 제천 제천 제천 제천 단양 충주 충주	제4대	최익신* 장치근 서돌문 표한신 김대성 김범수 조석진 김달문 이쾌성 지인식	제천 제천 영춘 청풍 청풍 홍해 원주 원주 원주 제천

(\* 표시 인물이 什長, 즉 隊長임)

이 군안(軍案)에 보이는 포군들이 호좌의진의 전군장이 거느린 포군 모두를 망라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렇다는 전제 위에 검토하면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1개의 대(隊)는 10명으로 이뤄져 있고, 십장이 통솔한다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각 대는 출신지역 별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였다는 점이다. 제1대와 제3대는 단양 거주자로 구성되었고, 제2대는 제천 출신으로 구성되었고, 제4대는 여러 곳 출신으로 구성된 특성을 가진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40명 중에서 단양·영춘 출신이 절반이나 된다는 것이다.

정운경은 이처럼 단양 출신의 포수로 이뤄진 병력을 이끌고 전선에 나섰다.<sup>47)</sup> 3월 들어서 경병이 충주 쪽에 나타나 압박하기 시작했으므로 북창과 방흥 쪽에서 방어에 힘썼다. 그리고 4월 들어서 경병이 원주 쪽에 나타나 의병에 협조했던 이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가리파재로 옮겨 적을 막았다.

한편 전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유인석은 단양에 전투부대를 구성하여 주둔하게 했다. 단양에 거주하던 이완하(李完夏)로 하여금 ‘장의장(仗義將)’의 임무를 띠고 100여 명의 포군을 거느리게 한 것이다.<sup>48)</sup> 민병대를 이끌던 장익환은 장의진 중군으로 차출되었다. 선봉장에는 김병수가 임명되었고, 민병조직에서 장익환을 돕던 이숙하·김동일도 장의진에 배속되었다.

<표 2 장의진의 구성>

직 책	성 명 (전직과 경력)
대 장	이 완 하
중 군	장 익 환(민병대장)
중군종사	이 영 복

47) 당시 자료에는 전군에 사군출신이 많았다고 하는데(박정수,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4월 3일, 456쪽), 정운경이 이끌었던 부대였으므로 단양을 비롯한 지역 출신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48) 장익환, 『일기』 병신년 3월 27일. 이완하는 단양에 거주하던 선비로서,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문약(文若, 호는 소산(小山)이다.

참 모	이 숙 하(민병소 참모)
선 봉 장	김 병 수
종 사	정 익(파수장, 대장 참모)
운 량	이 범 ■(소모장?)
장 계	엄 성 하(영월 민병장)
서 기	김 동 일(민병소 서기)

이후 청풍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하여 계란치 부근을 수비하는데 노력했다.<sup>49)</sup> 아울러 안성령 등을 파수장에 임명하여 장회 등지를 수비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에 영남 작전을 실패하고 돌아온 서상렬은 문경 쪽으로부터 쳐올라오는 일본군을 대비하여 별천·빛재 일대를 수비하고 있었다. 부근에는 장의진 선봉장 김병수가 회산리 일대를 지키면서 적을 방어하고 있었다. 아울러 황강에 머무는 경병이 제천을 칠 때에 뒤를 치기 위해 덕산 쪽으로부터 신당을 거쳐 공격하도록 작전을 세우기도 했다.<sup>50)</sup>

그러나 4월 13일 빛속에 제천의 본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군장 안승우가 전사했다는 소식도 뒤 미처 왔다. 유인석은 패전한 호좌의진을 이끌고 단양으로 내려왔고, 장의진 대장이완하를 중군으로 차출하고, 장의진 병력을 중군에 배속시켰다.<sup>51)</sup>

이후 호좌의진은 죽령을 넘어 영남쪽으로 옮겼으나 기대했던 호응은 없었다. 안동관찰사 이남규의 군대가 호좌의진을 압박했고, 장기림의 경군이 단양으로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었다. 협공당할 위기에 처한 호좌의진은 부득이 민백이재를 넘어 영춘 의골을 지나 영춘으로 옮겼다. 이후 하일(가곡면 대대리)과 가야(佳野, 가곡면 가대리)를 거쳐 단양의 만학(萬壑, 상진나루 건너편)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러나 단양도 이미 관군의 직접적인 위협 아래에 있었다. 유인석은 단양 수성장에게 군량 따위를 수산(壽山, 제천 덕산면 수산리)으로 옮기도록 하고 뒤이어 그쪽으로 병력을 옮겼다. 제천에서의 패전이 있는 지 열흘 후의 일이었다.

수산에서 호좌의진은 투쟁의 방침을 대략 정하였다. 일단 영남과 충청도 사이에서 의병을 다시 도모해 보고, 잘 안될 경우에는 서북쪽으로 이동하여 재기하자는 것이었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가 뒷날을 기약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후 유인석이 이끄는 호좌의진은 이후 이십여 일 동안 충주·음성·여주·원주를 거치면서 재기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영월과 평창을 거쳐 정선에서 그리고 정선에서 병력을 정비하면서 국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백관들에게 의리를 천명하는 격문을 보낸 후, 서북쪽에서의 재기를 목표로 하면서 두 달 가까운 긴 행군에 들어갔다. 그것이 이른바 ‘서행(西行)’이었

49) 장익환, 『일기』 병신년 4월 1일.  
50) 장익환, 『일기』 병신년 4월 10일.  
51) 장익환, 『일기』 병신년 4월 16일.

다. 그리고 결국 압록강을 건넜고, 청의 관헌에 의해 해산 당하고 말았다.

### Ⅲ. 후기 의병기의 단양의병

전기 의병이 좌절된 후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침탈은 더욱 강화되었다. 각종 이권을 빼앗아 갔고, 중앙의 각 부에 외국인 고문을 두도록 하는 이른바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한국주차군(韓國駐劄軍) 사령부도 설치되어 대규모의 일본군이 정식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권침탈에 대항하는 지역 사회의 움직임은 그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척사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향약을 건설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었다. 당시 친일적인 매국노들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일진회(一進會)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에, 유인석은 향약조직을 통하여 이를 저지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1904년 겨울 이후 단양에서는 장익환이 향약을 건설하였고,<sup>52)</sup> 영춘에서는 정운경이 향약을 이끌었다.<sup>53)</sup> 장익환이나 정운경은 모두 호좌의진에서 활약하던 인물들이다. 이웃의 제천이나 청풍, 충주에서도 향약이 실시되었는데, 이들 각각의 지역에서 향약조직을 이끈 이정규(李正奎)와 윤응선(尹膺善) 및 이기진도 모두 호좌의진의 휘하에서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이들의 활동이 있었기에 사군지역을 비롯한 이 일대에서는 일진회의 전횡을 크게 저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단양의 향약 조직은 도적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포군 조직’까지 갖추었다고 하는데, 이는 훗날 의병이 다시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05년 여름에 호좌의진의 맹장이었던 원용팔(元容八)이 주천(酒泉)에서 봉기하였다. 그는 호좌의진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향약 조직을 매개로 하여 조직을 만들고 의병을 모았다. 단양 일대에서는 정운경·이규영(李九永)·장익환·이규현(李奎顯)·지원영(池源永) 등이, 영춘에서는 이정희가 합세하였다. 이들 또한 일찍이 호좌의진에 몸담았던 이들이었다. 당시 단양 군수 박초양(朴初陽)은 원용팔의 봉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본군(단양군) 북일면 괴곡리의 동임이 보고한 내용에, 음력 7월 24일(8.24) 낮에 한 사람이 병사 근 백 명을 거느리고 영춘으로부터 매포(梅浦)에 와서 머물면서 의병을 일으킨다 하면서 사방에 파수꾼을 세우고 각 동리의 포군을 모집하니, 모두 놀라 도망가는 까닭으로 그 곳으로부터 병사로 하여금 총을 들게 하고 위세를 크게 떨치면서 강제로 징집하고 다음날 아침 후에 다시 영춘으로 돌

52) 박정수, 「元公三戒堂乙巳學義始末」,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호서의병사적』, 686쪽. 유인석도 단양의 명사들에게 제천의 향약 실시를 본받을 것을 권하였다(유인석, 「與李禹卿張受謙李景三李明五李士洪」 『의암집』 상, 466~467쪽).

53) “의암에게 여쭙고 동지와 함께 영춘 서쪽에서 향약을 시행하다. 議官 金昊淵을 도약장으로, 李會升을 도유사로 하고, 선생은 掌議를 맡아, 무너지는 기강을 부여잡으려 하였다.”(鄭元泰, 「정운경 행장」 『송운집』 권5, 21쪽 하).

아셨습니다.<sup>54)</sup>

당시 바깥에서는 원용팔의 봉기를 ‘충북의병’의 봉기로 이해했다. 즉 호좌의진의 봉기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원용팔의 봉기는 본격적 투쟁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원주 진위대에 체포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원용팔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운경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9월 초에는 단양으로 달려가 동지들을 모았다. 이규석(李圭錫)·김홍경(金鴻卿)·강수명(姜秀明)·지원영·김지현(金知鉉)·정해훈(鄭解薰)·원건상(元建常)·장익환 등이 그들이다.<sup>55)</sup> 장림(長林)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9월 8일에는 읍으로 쳐들어가서 수순교(首巡校)·서기·향장(鄉長) 등을 장림으로 납치하여 각 면의 포수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종사와 포수들을 사방으로 늘어놓아 사람의 내왕을 끊으면서 병력을 모으니,<sup>56)</sup> 포군과 민군이 삼시간에 삼사백명이나 되었다.<sup>57)</sup>

이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격문류가 지원영의 문집 『회실유고(晦室遺稿)』에 전한다. 「소모격문(召募檄文)」, 「효고각리대소민인(曉告各里大小民人)」, 「효고병정문(曉告兵丁文)」 등이 그것인데, 전통적인 유자(儒者)의 관점에서 본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원용팔이 진위대에 체포된 상황을 감안한 듯, 병정들에게 이번에 봉기한 본도의 의병대장은 유림의 으뜸이 되는 인물이라면서 깨우치는 글이 흥미롭다.<sup>58)</sup>

이 과정에 정운경은 중앙의 관계에 영향력이 있던 심상훈(沈相薰)의 명성과 후광을 빌어보려고 노력하였다. 전직 고관이자 고종의 인척인 심상훈은 을미의병 당시 의병에 동조적이었고, 체천에 거주하는 거물급 인사였기 때문에, 그를 끌어들이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컸다. 그리하여 장익환을 시켜 심상훈을 찾아가 그를 의병진에 끌어들였다. 그러나 심상훈은 단양의 매포에 이르러, 슬그머니 의진을 이탈하고 말았다.<sup>59)</sup>

9월 13일에는 읍내로 진출하고,<sup>60)</sup> 이강년에게도 사람을 보내 호응을 청하였다.<sup>61)</sup> 그러나 이틀 후인 9월 15일에 급히 출동한 원주 진위대의 공격을 받아 의병은 해산되고 정운경은 체포되어

54) 『대한매일신보』, 1905년 9월 5일, 잡보, 「是何義兵」; 『황성신문』, 광무 9년 9월 2일, 잡보, 「忠北義兵」.

55) 이세영, 「송운행적」 『송운집』 권5, 18쪽 하.

56) 『대한매일신보』 1905년 10월 25일, 잡보, 「義魁被捉」; 『황성신문』 광무 9년 10월 25일, 잡보, 「義兵猖獗」.

57) 이세영, 「송운행적」 『송운집』 권5, 18쪽 하.

58) 「효고병정문」 『회실유고』 (필사본).

59) 장익환과 심상훈에 관한 이야기는 강성열 님에게서 들었다. 이로 인하여 의진 내부에서는 심상훈을 ‘자래(자라) 대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1995. 10. 11). 당시의 신문에서도 심상훈의 납치사건은 보도되었다(『대한매일신보』 1905년 10월 19일, 잡보, 「沈氏安穩」; 『황성신문』 광무 9년 10월 19일, 잡보, 「義魁被捉」).

60) 『대한매일신보』 광무 9년 10월 25일, 잡보, 「義魁被捉」; 『황성신문』 광무 9년 10월 25일, 잡보, 「義兵猖獗」.

61) 정운경, 「祭雲岡李公文」 『송운집』 권4, 6쪽 하.

영춘에 구금되었다가 서울로 압송되었다.<sup>62)</sup> 의진 내부에서는 심상훈을 놓아 보낸 것이 의병 실패의 원인이라는 자책이 일었다.<sup>63)</sup>

평리원에 구금된 정운경은 11월 말에 이르러서야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정운경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중화를 높이 떠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은 『춘추』에서 가르치는 대의(大義)이며, 충성을 다하고 도적을 치는 것은 신민(臣民)의 본분이라고 배웠다. 지금 원수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략(侵虜)하니, 슬프다. 우리의 국권을 빼앗고, 재부와 판적(版籍 : 토지와 인구를 기록한 장부)을 마음대로 노략질하며, 또한 관방(官力)과 복색을 변혁하게 했으니 진실로 반분이라도 타고난 천성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찌 분통이 터져 원수를 몰아 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곧 의병을 일으켜 기필코 충절을 쾌히 펴보려고 했다가 마침내 관에서 병정들을 파견하여 체포하게 함으로써 군대는 해산당하고 몸은 체포되었다.<sup>64)</sup>

이렇듯 정운경의 두 번째 의병봉기는 미수에 그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봉기는 원용팔의 의거와 아울러 호좌의진의 역사에서 을미의병과 정미의병기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단양과 영춘 일대에 다시 의병이 봉기하는 것은 2년 뒤인 1907년, 정미년의 일이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하여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강년이 대표적인 지도자이다. 본래 문경 사람인 이강년은 호좌의진에 가담하면서 사군지역으로 활동 공간을 옮기다시피 한 인물이다. 그는 호좌의진이 해산된 후 금채동(단양 적성면 상원곡리 김치골)에<sup>65)</sup> 은거하면서 의병동지들과 계속 교류하고 있었다. 남천(南川, 영춘면 남천리) 출신의 김상태(金尙台)는 그의 가장 중요한 동지였다.

1907년 봄에 이미 이강년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군을 이끌고 갑산(甲山, 어상천면 연곡리 갑산마을)과 임현(任縣, 어상천면 임현리)을 거쳐 용소동(龍沼洞, 가곡면 보발리)에 들렀을 때에 영춘의 순검 및 일본 헌병의 야습을 받아 포군들은 흩어지고, 이강년 자신도 왼쪽 뺨과 팔뚝에 큰 부상을 입었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치료를 하면서 영춘과 청풍 및 연풍 등지를 전전하면서 잠행하였다.

잠행 중에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의 소식을 들은 이강년은 동지인 윤기영(尹基永)이 원주 진위대의 무기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주로 달려간 이강년은 그곳에서 봉기한 여러 의병부대와

62) 『대한매일신보』 1905년 10월 25·26일, 잡보, 「義魁被捉」·「匪魁押上」; 『황성신문』 광무 9년 10월 25·26일, 잡보, 「義兵猖獗」·「義魁押上」.

63) 이 때문에 당시 심상훈을 놓아 보내자고 했던 정근원이 의병 동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했다. 정운경, 「오석의 여러 동지들에게(與烏石僉君子)-별지(別紙)」 『송운집』 권 2, 2쪽 하.

64) 정운경, 「평리원공사」 『송운집』 권2, 37쪽 하.

65) 이강년 관련 자료에 나오는 ‘금채동’이 상원곡리 김치골이라는 것은 강성열 님에게서 들은 것이다. 그곳에서 이강년은 박상석의 집에서 훈장 노릇을 하였다고 한다(2007. 9. 28).

함께 제천으로 내려와 천남(泉南)에서 일본의 정규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 무렵 이강년이 몸담은 의진의 대장은 윤기영이었고, 이강년은 군사(軍師)에 머물렀다. 윤기영이 먼저 무기를 얻어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강년이 원주로 달려갈 때에 직접 거느렸던 것은 종사 11명 뿐이었으며, 대부분의 군사는 윤기영이 모은 것이었다. 그러나 을미의병 당시에 윤기영이 이강년의 휘하에서 중군으로 있었던 인연 때문에 지휘체계에는 다소의 혼선과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고 이강년을 대장으로 다시 추대한 것은 김상태였다. 천남 전투 후에 김상태는 사군지방에서 모아 온 군사들을 기반으로 이강년을 다시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김상태는 중군으로, 윤기영은 전군, 이용로는 좌군, 이세영은 감군으로 삼았다. 결국 을미의병기의 ‘호좌의진’이 다시 재건된 것이었다.

호좌의진을 재건한 후 첫 공격목표는 충주성이었다. 일본군의 완강한 수비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선 이후 이강년은 주로 단양·영춘·영월·청풍,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의 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치고 빠지는 유격전을 전개하며 의병장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 같은 양상은 을미의병기에 일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일본군의 거점을 공격하던 양상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일본의 정규군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유격전 뿐이었다.

이즈음 단양에서 독자적으로 의병을 일으킨 이명상(李明相)은 이강년 부대의 중요한 연대 세력이었다. 그는 포수들과 함께 계를 뚫었다가 의병을 일으킨 경우였다.<sup>66)</sup> 이강년 부대와 혹은 합치고 혹은 나뉘어 전투를 하였는데, 독자적인 자료를 남기지 못하여 구체적인 인적 사항조차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다.

어쨌든 단양 일대에서 가장 괄목한 활동을 벌인 의병장으로서 이강년을 꼽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단양과 영춘의 산간 지역은 이강년의 의병항쟁의 가장 중심된 근거지가 되었으며, 그같은 사실은 유인석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적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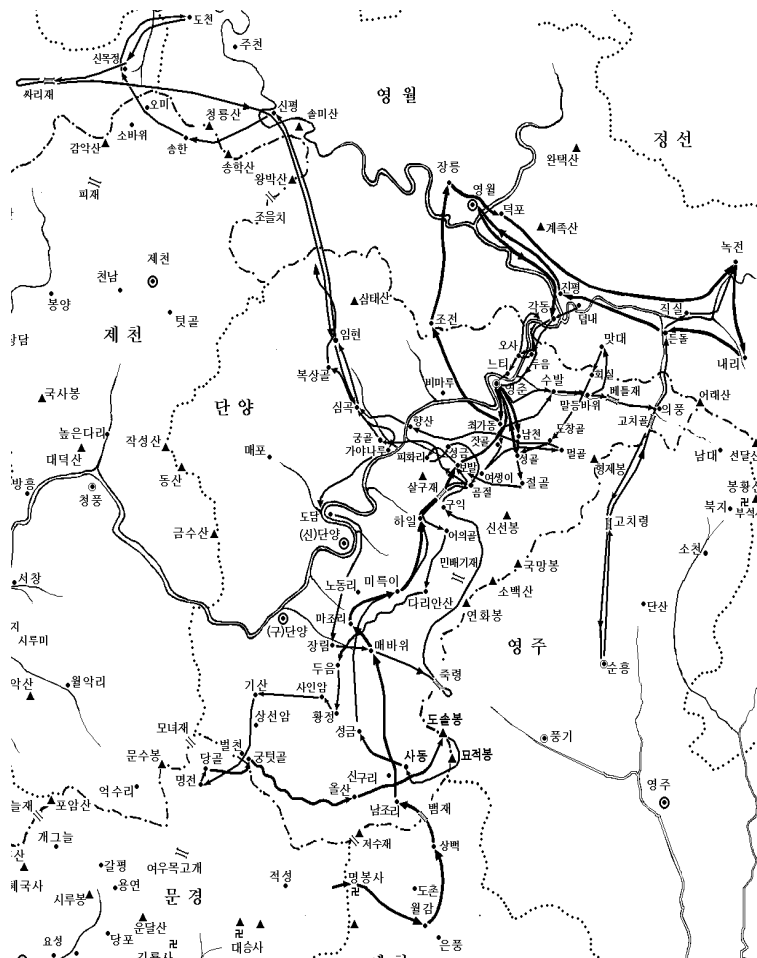
소자가 병사를 거느린 이래 영남과 호서, 관동의 200리 안쪽에서 적을 죽인 것이 쉰 셋입니다. 영춘과 단양·영월의 세 고을 사이에서 나아가 싸우고 물러서서 지키면서, 한 명의 동지도 없이 홀로 그 칼날을 받았습시다.<sup>67)</sup>

단양 지역이 이강년의 얼마나 중요한 활동 무대였는가는 그들이 이동한 궤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음의 지도는 이강년 부대가 문경 지역 작전을 마치고 단양으로 이동하는 9월 중순 이

66) 『창의사실기』 정미년 10월 20일(무인). 『창의사실기』는 내제문화연구회에서 간행한 『운강집』(2007)에 수록되었다.

67) 이강년, 「答上毅庵先生」 『운강유고』 1.

<이강년 부대의 활동 지역>



후 11월 중순, 사군 지역을 떠나기 전에 치른 복상골 전투까지 2개월 동안의 활동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그 가운데 단양 지역에서 벌어졌던 중요한 전투로는 남천(8.17), 죽령(9.27~10.6), 느릅재(남천 북쪽. 10.21), 복상골(어상천면 율곡리. 11.12) 전투 등을 들 수 있다. 치열한 전투과정을 보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보기로 한다.

**종일토록 크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불리하였다.** 정탐이 보고하기를, 40명의 적이 남면(南面)을 엿보고 있으며, 25명의 적은 장림(長林)을 엿보다 하므로 모든 부대가 죽령의 주 봉우리에 올라 장차 풍기의 빈 병참을 공격하려 하였다. 조금 있다가 남북의 적군이 급히 응암(鷹巖)의 좁은 길목에 이르러 갈 길을 차단하면서 줄지에 사격을 해 아군을 죽이므로 적에 저항하였으나 건너가지 못하고 소백산 꼭대기 쪽으로 달아나다. 공이 최후까지 골짜기 입구의 바위 아래에 위태롭게 앉아 각

군에게 호령하다. 이에 좌우선봉이 좌우의 산비탈에서 사격하고 대장이 친히 거느린 병사들이 바위 사이에 몸을 숨겨 사격하니,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험한 길을 따라 산꼭대기에 이르니, 초겨울의 눈보라가 사람의 살기죽과 뼈를 찌르는 듯하였고 게다가 종일토록 굶주리고 목마른 병사들이 엎어지고 쓰러졌다. 단양 고을의 박포수는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군대의 제도에 익숙하지 못하여 뒤에 처져 고개에 있다가 밤에 얼어 죽었으니, 참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sup>68)</sup>

물론, 이강년 외에도 많은 의병 부대가 단양과 영춘 일대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였다. 그 중에는 이명상과 민영팔(閔泳八) 및 이한승(李漢承) 등이 있다. 이명상은 단양의 하진 출신이었으며, 1909년 5월에 순흥 함산골에서 교전 중에 전사하였다고 한다.<sup>69)</sup> 민영팔은 본군의 포수들과 계를 맺어 봉기했다는 인물로서<sup>70)</sup> 상당한 규모의 해산군인을 거느린 의병장이었다.<sup>71)</sup>

그러나 그 밖의 인물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잘 알 수 없다. 여러 의진 사이에 중첩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개별 의진들의 성격에 대하여도 잘 알려진 부분이 없다. 하지만 을미의병 이래의 전통을 계승한 이강년의 호좌의진과 느슨한 연대관계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상의 경우는 비교적 분명한 경우이고, 민영팔도 호좌의진과 연관관계를 시사하는 칭호를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sup>72)</sup>

이강년의 호좌의진은 겨울로 접어들면서 일본군의 거듭된 공세에 시달렸다. 특히 복상골 전투는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많은 병력을 잃은 전투였다. 의병 봉기 후에 전투에서 부하를 잃은 적이 없다는 이강년이었지만, 일본군의 매복에 걸려 큰 피해를 겪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강년 부대가 지금까지의 근거지를 버리고 북상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북상했던 이강년이 이끄는 호좌의진의 주력 부대가 단양 쪽으로 돌아온 것은 이듬해 초여름의 일이었다.<sup>73)</sup> 그동안 이강년은 경기도 가평 일대까지 진출하여 겨울을 나면서 부대를 재정비하고, 다른 여러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서울을 위협하였다고 한다. 1908년 초에 있었던 13도 의병의 서울 진공작전이 그것이다.

이강년의 주력 부대가 북상한 기간 동안에도 단양 지역에서는 의병과 일본군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의병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일본군과 접전하고 있었지만, 단양과 영춘에서의 충돌 사례도 많이 보인다. 영춘의 사지원이나 단양의 도기, 영춘의 여천리, 단양의 삼산동 부근에서의 충

68) 『창의사실기』 정미년 10월 6일(갑자).

69)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6, 62쪽. 충북고비수 1228호의 3(09.11.26).

70) 『창의사실기』 정미년 10월 무인.

71) 『폭도에 관한 편책』 1907.11.11보고(이하 『편책』 으로 표시함).

72) 1909년 3월에 ‘湖左仗義中軍 李’의 이름으로 보내온 전령문이 있는데, 그것은 민영팔 부대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편책』, 『폭도 징발장에 관한 건』(충북경비발 73호 : 1909.5.31) ;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4, 328쪽) ; 『편책』, 『충주 제천 폭도특별 상보』(충북경비발 제74호; 1909.5.31) ;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4, 329쪽).

73) 이하 이강년 부대의 활동에 대하여는 『창의사실기』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일일이 각주를 달지 않았다.

돌이 대표적인데, 김상태나 원건상 등 이강년의 동지들이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영춘 군수 같은 경우는 일본군이 지역에 주둔하지 않으면 부임하지 않겠다면서 부임 자체를 거부하는 실정이었다.<sup>74)</sup>

그리고 그같은 의병들의 투쟁은 대장 이강년이 체포된 뒤에도, 그리고 일본군의 집요한 ‘귀순’ 공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김상태는 이강년을 이어 호좌의진을 이끌었으며, 영남 지역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활동하는 많은 소규모 의병 부대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1908년 연말까지도 단양이나 제천 일대에는 20명 정도의 의병 부대가 끊이지 않고 활동하면서 일진회원들을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였다고 한다.<sup>75)</sup>

#### IV. 맺 음 말

이처럼 단양 지역은 전기의병기로부터 후기의병기에 이르기까지 의병항쟁의 중요한 무대였다. 전기에는 몇몇 잘 알려진 인물들의 활동이 주목되고, 유격전이 전개된 후기 의병기에는 수많은 전투의 현상이 단양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 지역은 한말 구국 투쟁의 역사에서 길이 기억되어야 할 성지이기도 하다.

먼저 전기 의병기에는 장충식과 장익환 부자와 이완화의 활동이 눈에 띈다. 일찍이 민씨 정권과 관련이 깊었던 장충식은 무엇보다도 중전 민씨의 시해에 분노하여 의병을 주모하였으며, 계획 단계에서 지평의 의병들이 주축을 이룬 제천의진이 몰려오자 협조했다. 유인석이 대장으로 추대되면서 호좌의진으로 재출범하자 장충식은 사객 겸 참모로서 중군하고, 장익환은 단양의 민병들을 이끄는 민병대장이 되었다.

전황이 급해지면서 단양에 전투부대를 두게 되자 이완화가 장의장이 되는데, 장익환이 이끌던 민병소의 조직은 장의진 속에 해소된다. 당시 단양 이외의 지역에도 민병대가 조직되었을 텐데, 민병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예로서 단양의 경우가 주목될 만하다. 장충식의 의병노선이 호좌의진 지도부의 그것과 차이가 있음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투의병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후기 의병기에 단양은 주로 전투현장으로서 부각된다. 이강년의 호좌의진이 활동하는 주요 공간이 단양이었으며, 호좌의진이 재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도 영춘면 남천리 출신의 김상태였다. 단양의병장이라 일컬어졌던 이명상 부대는 호좌의진과 혹은 합치고 혹은 나뉘어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밖에도 민영팔이나 김상한의 부대가 단양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독자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모는 잘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앞으로 단양의병에 대하여는 문헌 자료 연구와 함께 의병항쟁의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74) 『폭도사편찬』, 「통보」(보병 제12여단사령부 守發 제120호 : 1908.4.21) ; 『독운』 10, 270쪽.

75) 구완회, 1997, 『한말의 제천의병』, 373쪽, 각주 14.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양에 거주하던 인사들의 개인문집 등이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투현장이나 행군로를 그곳에 살던 농민이나 지식인들의 동향과 관련하여 확인하고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양 출신 의병장들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군의 자료에 산견되는 이명상·김상태·민영팔 등의 대표적인 의병장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조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sup>76)</sup> 그러한 기초연구가 이뤄져야 단양의병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2009.12.08, 심사시작:2009.12.09, 심사완료:2010.01.7]

주제어: 호좌의진, 장충식, 이강년, 김상태

---

76) 김상태는 한일합병 이후에까지도 의병의 깃발을 놓지 않다가 1911년에 체포되어 순국한 경우인데, 100주기가 다가오지만 그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단양의병장인 이명상의 경우 1963년에 일찌감치 서훈되었으나 후손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민영팔의 경우는 서훈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ABSTRACT>

## Righteous Army resistance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n Dan-yang

Ku, Wan-hoe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Danyang was the important area for the movement of army that fought against the Japanese police and army. During the early movement, Jang Choong-sik and Jang Choong-sik who were father and son, Lee Wan-ha and others played major roles in the leadership of Hojwaeuijin.

Especially, it could be seen in the area that Danyang militiaman troop turned into a combat troop. In late movement, Danyang became an important combat area where Lee Gangnyun, Kim Sang-tae, Lee Myung-sang who was the general of the army in Danyang, and Min Byung-pal who rose in rebellion with Lee Myung-sang were remarkable members. However, except some research about Lee Gangnyun, even basic research has not been done yet because there has been no specific historical materials about others. Therefore, there is some necessity to push ahead the research based on Danyang area.

key word : Hojwaeuijin, Jang Choong-sik, Lee Gangnyun, Kim Sang-tae